

광양시립도서관, 독서 소외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강화

다문화·장애인 등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확대 추진

광양시가 관내 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시는 각 도서관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다문화가정,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등 문화적·경제적·신체적 여건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독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모 및 자체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 **도서관별 특화 서비스 운영**
광양중앙도서관은 2018년부터 다문화 계층을 위한 체험·자격증·문화강좌 등을 꾸준히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공모사업인 '2025년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그림책 제작 프로그램과 출판기념회를 진행했다.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운영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176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자신의 문화와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직접 엮어 출판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적 자긍심과 가족 간 공감의 폭을 넓혔다.

완성된 11권의 그림책과 오디오북은 출판기념회에서 공개됐다. 이날 명예작가 위촉식과 작가 초청 강연이 함께 열려 참여자들의 성취감을 높이고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중앙도서관은 내년에는 창업 및 전문 역량 습득형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문화인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양중앙도서관은 장애인과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주관 공모사업으

로 추진된 이번 프로그램은 광양시중마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 5월부터 9월까지 총 19회 운영됐으며, 146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책 읽기와 독후활동, 작가와의 만남, 동극 공연 등을 통해 참여자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사회적 소통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한 중마도서관은 전남도립도서관이 주관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해 동광양평화지역아동센터에서 4월부터 8월까지 총 16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26명의 아동은 주제 독서를 함께 읽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 대상 복지기관과 연계해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서관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양희망도서관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을 추진했다.

6월부터 9월까지 총 15회 운영된 프로그램에는 146명의 어린이가 함께했으며, 그림책 만들기·작가 초청 강연·독서 체험활동 등을 통해 책 읽기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도서관을 보다 친숙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광양용강도서관은 4월부터 7월까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총 13회에 걸쳐 92명이 참여했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협력해 선정



독서를 함께 읽고, 문화 체험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사회적 소속감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 **찾아가는 맞춤형 독서 서비스 확대**

광양시는 이 밖에도 '책 읽는 가게' 사업을 운영하며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책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광양시립도서관 5개관(중앙·중마·희망·금호·광영도서관)이 함께 추진 중이며, 2025년 9월 기준 ▲중앙도서관 94개소(990권) ▲중마도서관 120개소(999권) ▲금호도서관 20개소(125권) 등 다수의 가게가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게 한편에서 책을 읽거나 고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가 확산되며, 지역 전반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책나래 서비스'를 지속 운영해, 독서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독서 복지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 **내년도 사업 운영 계획**

2026년 광양시는 ▲지역 장애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취약계층(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다문화인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등, 도서관의 특성에 맞춘 계층별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독서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이동형 독서 지원 프로그램 강화, 각종 공모사업 발굴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특히 도서관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교육기관 등과의 연계를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이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숙 도서관과장은 "광양시는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독서를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이전공공기관 오케스트라, '가을밤의 아름다운 선율' 선사

'따로 또 같이 오케스트라 16', 25일 한국에너지공대서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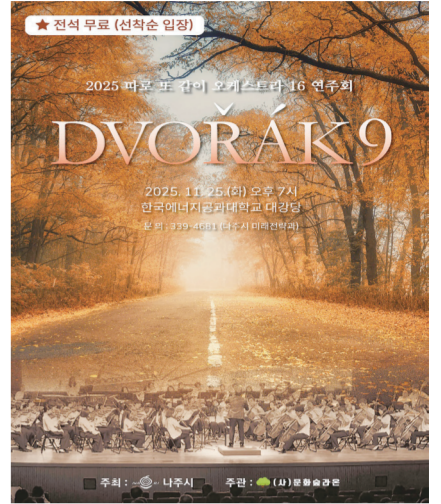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시 빛가람동)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으로 구성된 '따로 또 같이 오케스트라 16'이 한 해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저물어가는 가을밤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25일 오후 7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2025 '따로 또 같이 오케스트라 16' 연주회 '드보르작 9(DVORAK 9)'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주제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지역 주민들에게 오케스트라 음악의 감동을 선사하고 지역 주민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는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의 메인 프로그램인 '드보르작 교향곡 9번(신세계로부터)'은 총 4악장으로 약 40분간 웅장한 클래식의 진수를 선보인다. 이어 일본 애니메이션 '마녀 배달부 키키'의 OST인 '바다가 보이는 마을', 영화 '어벤저스'의 메인테마, 전 세계 음악 콘텐츠 시장을 뒤흔든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OST '골든(Golden)' 등 대중적으로 친숙한 곡들이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따로 또 같이 오케스트라 16 연주회는 지역 주민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등 구성원 모두가 음악으로 하나 되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더욱 풍성하고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Golden)' 등 대중적으로 친숙한 곡들이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따로 또 같이 오케스트라 16 연주회는 지역 주민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등 구성원 모두가 음악으로 하나 되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더욱 풍성하고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수험생의 심포가 되어줄 곳, 전남도립미술관으로 오세요

프랑스 박물관 소장 작품전 등 3개 전시 30일까지 무료 관람

전라남도립미술관이 오는 30일까지 2주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을 위한 전시 무료입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본인의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은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장기간 수험 준비로 지친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도록 기획됐다.

현재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기증작품전 '바람 빛 물결',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기념전 '블랙&블랙', 프랑스 케브랑리-자크시라크 박물관(Musée du quai Branly - Jacques Chirac)과 국립중앙박물관이 공동 기획한 순회전시 '마나 모아나 - 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가 진행 중이다.

'바람 빛 물결'은 기증을 통해 형성된 소중한 미술관 자산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마련된 전시다. '자연'을 주제로 한 고희환, 양계남, 윤재우, 천경자 화백의 작품 11점을 선보인다. 한국적 자연주의에서 추상에 이르기까지 작가 각각의 시선

으로 재해석한 남도의 풍경을 통해 기증작품의 예술적·사회적 가치를 조명하고 있다.

'블랙&블랙'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4주년을 기념, 동아시아 수목의 먹빛과 1950년대 서구 블랙 회화를 현대미술의 시각에서 교차 조명한다. 윤두서에서 피에르 솔라주, 한스 아르통, 이우환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거장 20명이 참여한 70여 점의 작품을 통해 '블랙'이 지닌 예술적 교감과 생명력을 탐구한다.

'마나 모아나 - 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는 프랑스 케브랑리-자크시라크 박물관이 소장한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오세아니아 유물 171점과 현대 작가 8인의 작품을 소개한다. '마나(Mana)'는 신성한 힘, '모아나(Moana)'는 바다를 뜻하며, 이번 전시는 항해·정착·정체성의 주제를 통해 오세아니아 예술의 세계관을 조명한다. 태평양의 물결처럼 예술의 여정을 잇는 뜻깊은 국제 미술전이다.

/김명수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군열린도서관이 오는 11월 29일(토)부터 30일(일)까지 2일간 군민종합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미니 동물원"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니 동물원"은 우리 지역에서 쉽게 만나기 힘든 포유류, 파충류, 조류 등 30여종의 소동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체험형 전시 행사다.

해설사의 동물 설명,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

화순열린도서관 "미니 동물원" 운영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동물들과의 특별한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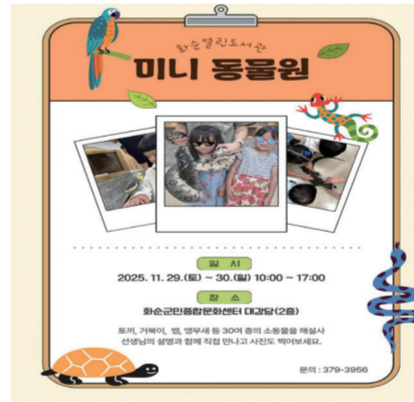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도 생생한 교육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감상형 문화예술과장은 "작년에 독서

의 달 프로그램으로 미니 동물원을 운영한 결과 큰 호응을 얻어 올해도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라며, "지역 주민들이 도심속에서 동물들과 교감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화순/김중환 기자



국민 내로물 위한 정책사업

보다나인 농어촌

농

지가 있다면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어

금이 있습니다

기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